

## 김수영의 월평(月評)과 모더니티

- 『사상계』 시 월평을 중심으로 -

이 승 규\*

### 차 례

- |                      |                 |
|----------------------|-----------------|
| 1. 시단(詩壇)의 진단과 시의 진로 | 3. 모더니티의 향방과 양심 |
| 2. 모더니티의 결여와 혼신      | 4. 결어           |

### 국문초록

김수영은 1964년 『사상계』를 통해 본격적인 월평 작업을 시작하면서 비평가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월평 활동이 그의 시적 역량과 지성적 안목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의 시작(詩作) 발표 또한 스스로의 월평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월평은 동시대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그의 시관을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1964년 『사상계』 월평의 특징은 모더니티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수영에게 모더니티의 추구는 서구문학(세계문학)과의 동시성을 이루는 일이며, 당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감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전월 발표된 주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모더니티 접근의 성과를 평하고 한국 시단 현실에 시급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모

\* 안양대 교양대학

더니티의 주조 과정으로 감각적 묘사와 진술시의 시도를 제안하면서도, '사상'의 여과를 거친 발언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 '신념'이 숨 쉬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수영이 시에서의 '양심'의 개념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내용 없는 '기술' 혹은 '기법',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친 '발언' 혹은 '진술'과 대별되는, 사심 없는 정신의 작용이자 동시대의 현실성과 시적 진정성의 표출이며 그가 특수하게 의미화한 모더니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수영, 월평, 모더니티, 현실성, 양심

## 1. 시단(詩壇)의 진단과 시의 진로

김수영이 본격적으로 시 월평을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다. 그 전에 문학론이나 시집평(詩集評), 연평(年評) 등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처음으로 잡지에 정기적인 월평을 게재한 것은 『사상계』 1964년 5월호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김수영은 계속하여 여러 신문과 문학지를 통해 월평을 쓰고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립한다. 월평은 추상적인 이론의 서술보다는 동시대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즉각적인 해석과 평가로 이루어지며, 독자로서의 비평가의 위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비평 형식이다.<sup>1)</sup> 그래서 그의 월평은 그가 쓴 시나 시작노트와는 다른 각도에서, 동시대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그의 시관을 세밀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김수영의 월평은 다른 평론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 월평의 성과가 연평(年評)으로 집약되기도 하며, 기타 산문들과 뒤섞이며 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월평 작업은 시기에 따라 관심의 영역이

---

1) 이시은, 「1950년대 '전문 독자'로서의 비평가 집단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 4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p.164 참조.

나 의식의 지향에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며, 그것은 여타의 평론이나 수필과는 달리 시의식의 전개 과정을 비교적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월평은 처음으로 『사상계』에 네 편이 발표된 이후, 김수영이 타계하는 전 해까지 연속으로 발표되었다. 단발적으로 나온 것을 제한다면 그의 월평은 시기와 매체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잡지에 게재된 월평은 신문의 월평에 비해 분량도 두 배로 길어 작품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시인이 달을 이어가며 비교 언급되어 시의 변화 과정까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시기의 『사상계』 월평은 두 번째 시기 신문의 월평과는 일 년 반의 시기적 격차를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독립되어 면밀한 고찰을 요한다.

『사상계』 월평이 시작된 1964년은 김수영이 44세라는 원숙한 나이에 접어드는 시기이면서 시적으로 상당한 변모를 보여주는 때이기도 하다. 그가 4·19혁명의 좌절에서 비롯한 <新歸去來> 연작을 마치고 일 년간의 모색기를 거친 뒤, 그의 주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巨大한 뿌리>, <現代式 橋梁>을 창작한 때도 바로 그해이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타계하기까지의 4년,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사랑의 變奏曲>, <꽃잎> 연작, <풀> 등 김수영의 대표작들이 양산되는 시기와 월평이 발표되는 시기가 겹친다. 따라서 김수영에게 월평 활동이 그의 시적 역량과 지성적 안목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작(詩作) 발표 또한 자신의 월평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sup>3)</sup>

2) 시기별로 1964년 5월부터 8월(『사상계』), 1966년 1월부터 12월(『서울신문』), 1967년 1월부터 3월(『현대문학』), 같은 해 7월부터 12월(『서울신문』)로 나눌 수 있다.

3) 김수영이 비평을 쓰면서도 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문학에 대한 정직한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상계』 월평 연재가 끝난 다음 달 『현대문학』(1964. 9.)에 발표한 평론에는 시인으로서 비평을 대하는 괴로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요즈음 S잡지사의 권유로 「시 월평」이라는 걸 써보았는데, 그 바람에 시는 통 못 썼다. 시인은 심판을 받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시인이 심판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번민을 하게 된다(남에게 얻어먹은 욕은 즉석에서 철회할 수 있지만, 남에게 한 욕은 철회하기 몹시 힘들다). 또한 사기를 한다. 심판을 하자면 올

1964년 『사상계』 시 월평은 매달 수많은 작품이 다루어지면서도 모더니티의 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전월(前月) 각종 매체에 발표된, 언급할 만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모더니티의 구현이라는 기준을 놓고 당대 시단을 진단하면서 시인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월평은 모더니티에 대한 김수영의 시각과 방법론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김수영의 시관에서 모더니티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당대의 시가 사회 현실 속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이면서, 부단한 실험과 자기 갱신을 꾀하려는 태도 자체이다. 그의 시와 산문 속에서 자주 강조되는 모더니티의 문제가 다소 모호하고 관념적으로 서술되었다면, 월평에서는 그것의 구현에 대한 실패와 성공이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나타나므로 김수영이 생각하는 모더니티의 의미가 한결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수영이 쓴 1964년 『사상계』 5~8월호의 월평을 중심으로, 10월호의 연평(年評)과 같은 해에 나온 여러 평론과 산문은 물론, 거기서 다루어진 모든 시 작품 전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모더니티에 대한 진술과 분석 과정을 고찰한다.

---

가미를 씌어야 하는데 이 올가미에 자신까지 걸려들기는 싫다. 자기가 걸려드는 올가미는 시를 다칠까 보아 싫고 자기가 걸려들지 않는 올가미는 비평이 거짓말이 되니까 싫다.”(김수영, 「시인의 정신은 미지(未知)」,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p.254.)

- 4) 월평에서 행해지는 작품의 평가는 일반적인 개론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문학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산출한다. 이는 또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창조적 시론을 낳기도 한다.(김준식, 「초창기 잡지의 시 월평과 신시론의 전개」,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p.243 참조)

## 2. 모더니티의 결여와 혼선

김수영은 「모더니티의 문제」(『사상계』 5월호) 도입부에 시와 현실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인들이 한국 현대시의 후진성을 인정하고 더욱 분발하는 과단과 결의를 요청하고 있다.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다. 나는 우리의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시의 양심과 작업은 이 뒤떨어진 현실에 대한 자각이 모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현대시의 밀도는 이 자각의 밀도이고, 이 밀도는 우리의 비애, 우리만의 비애를 가리켜준다. 이상한 역설 같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적인 시인의 긍지는 ‘앞섰다’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졌다’는 것을 확고하고 여유 있게 의식하는 점에서 ‘앞섰다’. 세계의 시 시장에 출품된 우리의 현대시가 뒤떨어졌다는 낙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들에게는 우선 우리들의 현실에 정직할 수 있는 과단과 결의가 필요하다.<sup>5)</sup>

그는 한국 현대시의 후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뒤떨어진 미숙한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시인의 현실적 책임이 시의 기술면에만 치중될 수 없는 애로와 불행이 있지 않은가”<sup>6)</sup>라며 그것을 시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뒤떨어졌다’는 자각의 기준은 세계문학으로서의 서구의 현대시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모더니티의 지향점이 동시대 서구의 시라는 점에서 김수영이 번역과 독서를 통해 얻은 서구문학의 전통 혹은 전형이 그의 모더니티 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말대로 시가 현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때 서구시의 지나친 의식은 도리어 한

5) 김수영, 「모더니티의 문제」,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p.516.

6) 위의 글.

국시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한국 현실의 망각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뒤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언제나 새로운 문학을 지향하는 현대시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시급히 실행해야 할 일이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매달 발표되는 당대의 시의 평가를 통해서 현대시의 요건과 방향을 가늠하려고 하였다. 같은 글에서 처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무분별한 운용과 지성 없는 난삽한 실험이다.

休息은 大地  
위,  
裸木에는  
裸木으로 있게 하며 있는 空間感이 차게 열리다.

- 이수복 <裸木> 부분(『현대문학』 4월호)

사람은 언제  
필러이지 않는 그것이 되는가  
날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이 달라졌을 때  
사람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고 만다

- 신동집 <또 한번 大地여> 부분(『사상계』 4월호)

위의 예는 모두 문법을 무시한 시행들인데, 첫 번째 시가 단순히 자구와 문맥을 무시한 것이라면, 두 번째 시는 “이미지를 무시함으로써 문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sup>7)</sup> 여기서 “이미지”는 ‘시상’ 또는 ‘내용’과 유사한 의미로 쓴 것으로 여겨지며, 단순한 문법의 무시도 문제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표현한 시가 더욱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의미를 도외시 한 표현의 새로운 시도, 즉 실험의 난행이

---

7) 위의 글, p.518.

불러일으킨 현상이며 앞서 참담한 어조로 인정하자고 말한 한국 시단의 후진성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는 시를 쓰는 것이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것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sup>8)</sup>

그는 「즉물시(卽物詩)의 실험」(『사상계』 6월호)에서 신석초의 작품을 들어, 시인의 고답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관념성이 작품을 치명적으로 해치고 있으며 그것이 “비현대적도 아닌 반현대적인 작품”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아아, 이 무슨 假面, 이  
무슨 공허한 탈인가  
아름다운 것은 멀하여 가고  
잊기 어려운 회한의 찌꺼기만  
천추에 남는고나.  
그르친 용의 아들이여  
處容.

- 신석초 <處容은 말한다> 부분(『현대문학』 5월호)

지금 그의 주머니 안팎에  
許諾된 經濟는 二〇圓  
그 안에서 그는 君主이다.

(…)

그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二〇圓짜리 世界는 되는 셈이다.  
소리를 지른다. 욕을 하고 싶어진다.

8) 이러한 비판은 이후 「'난해'의 장막」(『사상계』 1964. 12.) 발표로 인해 전봉건의 응수(『사기론-김수영 시인에 부쳐』, 『세대』, 1965. 2.)를 부르고, 다시 김수영의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사기론」에 대하여」(『세대』 1965. 3.)로 이어져 두 사람 간의 논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9) 김수영, 「즉물시(卽物詩)의 실험」, 위의 책, p.525.

야! 여기 아무도 없구나 나뿐이로구나  
뿔들 하고 있어 이놈들아,  
하늘과 땅 사이 남의 귀는 없다.  
크게 웃는다 가로등이 따라 웃고 있다.

- 황금찬 <二〇圓짜리 世界> 부분(『사상계』 1963년 12월호)

김수영의 월평에서는 시를 인용하지 않고 제목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작품 모두 모더니티와 관련지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處容은 말한다>는 6면에 달하는 긴 시로, 소재의 진부함은 물론이고 인용한 부분과 같이 내내 영탄조에 감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 김수영에게 “반현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시행의 언어만 보더라도 그의 현대적인 의향과는 동떨어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무엇보다 그는 “서정주를 낳았다고 하지만 그는 이런 관념시는 쓰지 않는다”<sup>11)</sup>고 하여 위의 시를 관념시로 보면서 이러한 관념시를 모더니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본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 해에 발표된 황금찬의 <二〇圓짜리 世界>에 대한 언급이 그와 대비된다. 김수영은 이 작품이 능변조를 벗어난 구체적인 작품이라면서 칭찬하는데, 결국 관념성을 탈피한 구체적인 표현을 모더니티에 부합하는 작법으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뚝심이 강”하고 “형태적으로는 매력이 있었지만 모더니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딘지 핀트가 좀 맞지 않는 데가 있었다”<sup>12)</sup>는 진술은, 언어 표현과 결

10) 앞서의 월평 「모더니티의 문제」에서 박성룡의 <東洋畫集 1>(『문학춘추』 1964. 4.)이 “현대적인 단어 ‘표출’, ‘선명한 혼돈’, ‘유·무한’, ‘천체’, ‘가구류’, ‘반 고흐’, ‘표정’-를 과부족 없이 배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p.519)다고 하며 이를 ‘표면적인 모더니티’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김수영의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이 특히 언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알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11) 위의 글.

12) 김수영, 「즉물시(卽物詩)의 시험」, 위의 책, p.524.

말의 의미가 좀 느슨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현대성’에의 도피』(『사상계』 7월호)에서는 ‘현실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이도의 <帽子>가 앞의 시들과 달리 표현도 깔끔하고 발언도 바르는데 한국의 현실을 다룬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食慾이 한참인  
午後의 거리를 지나가면  
레스토랑에서 새어나오는  
그 냄새와  
笑談하는 人物들의 閑暇한 때,  
그들의 帽子는  
나란히 壁에 걸려서  
食慾에 빠지든가  
財産을 去來하든가  
政治에 沒頭하는 法이다.

(…)

나는 누구의 것이든  
帽子를 하나 훔쳐 쓰고 나와야지.  
거리의 中心을 걸어가며  
나의 親舊  
나의 淑女  
나의 先生들에게  
엄숙한 人事를 하고  
다시 바라보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帽子를 벗어 들고  
熱辯을 吐해야지.  
그러나 나의 結論은  
아뉘!  
하늘 높이 帽子를 흔들며  
作別을 告해야지.

小市民의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  
피리를 불며  
그 한때를 이끌고  
市廳 앞으로 나가야지.

- 박이도 <帽子> 부분(『현대문학』 6월호) (굵은 글씨 : 논자)

김수영이 월평에 인용한 시행은 굵은 글씨 부분으로, 그 부분만으론 시 전체의 의미를 온전히 짐작하기 어렵다. 그는 인용 뒤에 “이것이 한국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릿광대의 유희도 분수가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는 단적으로 말해서 ‘신라(新羅)’에의 도피나 ‘순수’에의 도피와 유(類)를 같이하는, 현대성에의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sup>13)</sup>라고 하였다.

시적 자아의 돌연한 열변과 작별 인사 같은 행동이 엉뚱해 보이고 “아듀!” 같은 프랑스어 인사의 어색함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날 선 비판이 행해진 것은, 김수영의 말대로라면 이 시와 한국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라’에서 연결되는 서정주나 ‘순수’에서 이어지는 청록파, 김춘수 류의 시와 마찬가지로 ‘현대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에서 살필 수 있는 것과 같이 김수영에게 모더니티란 현실 감각의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모더니티의 규정과 별개로 이 시를 ‘어릿광대의 분수’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월평에 인용한 부분에서 확대해 보면 이 시에서 ‘모자’는 당대 사회의 소시민성을 상징하고 이 시가 그것을 나름대로 풍자했다고 할 때 김수영의 일방적인 비판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김수영이 현실 감각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적 자아의 현실적 태도의 차이가 그에게는 모더니티

13) 김수영, 「‘현대성’에의 도피」, 위의 책, pp.530~531.

를 달성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3. 모더니티의 향방과 양심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인들의 노력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명료한 사상을 명료한 형태에 넣는다는 현대시의 가장 초보적인 명제”<sup>14)</sup>를 실천한 작품으로 박목월의 <動物詩抄>를 든다. 모더니티 요건으로의 ‘형태의 명료함’은 앞 장에서 비판한 관념적인 표현과 대별되는 구체화된 표현과 연관된 것이다. 이는 박목월의 시에서 볼 수 있듯 감각적인 묘사에서 비롯한다.

#### IV <駱駝>

진실로 薄福한 그 입. 소가 아무리 미련한 짐승이지만 그 든든하고 確固한 턱과 입으로 보아 朝飯夕粥에 窮할 八字가 아니다. 하지만 아랫 입술을 약간 내민, 옅은 가죽이 민중하게 쳐진 약대의 입은 온 얼굴이 입이다. 서러운 面相을. 물 한모금 제대로 못 마실 運命에 順應해서, 입과는 距離를 두고, 저 안쪽에 어질고 작은 눈에 찬물이 고인 채……  
그는 잠잠하다.

- 박목월 <動物詩抄> 부분(『현대문학』 5월호)

위 시는 월평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으로 시적 자아가 ‘창경원’에 들러 낙타를 관찰한 부분이다. 그 외에 하마, 타조, 원숭이를 소재목으로 삼아 다루었는데 월평에 인용한 별장(別章) 잉어 부분은 직접적인 관찰이 아닌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고 실제로도 시 전체의 조화를 깨뜨린다.<sup>15)</sup> 추상적인 내용보다 사물의 실제 모습에 대한 직접적

14) 김수영, 「즉물시(卽物詩)의 시험」, 위의 책, p.521.

15) 시의 단락 편집에 시인이 의도적으로 간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인 반응이나 인상을 증시하는 즉물시의 입장에서는 월평에 인용한 별장 부분보다 위의 부분이 더 구체적이다. 낙타의 실제 모습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렇지만 시적 자아가 인상 받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더 개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수영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한 사람도 이런 경향에서 성공한 작품을 내지 못했다. 뒤 떨어진 현대시의 거리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으로서 이러한 기도와 성공은 그 가치를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과찬이 되지 않을 것이다”<sup>16)</sup>라고 한 것은, 모더니티의 측면과 이 시가 상당히 부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동물시보다 더 자연스럽게 형태의 조소미를 지니면서 의미를 조화시킨 작품으로 같은 시인의 <迂廻路>를 들고 있다.

病院으로 가는 긴 迂廻路  
달빛이 깔렸다.  
밤은 에텔로 풀리고  
擴大되어가는 아내의 눈에  
달빛이 깔린 긴 迂廻路.  
그 속을 내가 걷는다.  
흔들리는 남편의 모습.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메스를 카아제로 닦고……  
凝結하는 피.  
病院으로 가는 긴 迂廻路  
달빛 속을 내가 걷는다.

시는 산문시에 단락을 줬던 형태를 지니며 나름대로 실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형태적인 단정함을 살리려는 뜻 외에 산문시의 호흡을 더 짧게 물고 가기 위한 리듬의 의도로도 풀이된다. 똑같은 단락 형태의 짝막한 별장(別章)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빨래 나온 童女の 다리만 스치고도 胞胎하게 한 鯉魚가 草笠에 珊瑚동곳을 박은 붉은 상투를 틀어올리고 도련님 行色을 했다. / 만일 핏물이 별경계 선, 검벽이지 않는 두 눈이 아니었더면 아무도 그가 잉어라는 것을 몰랐으리라.”

16) 앞의 글, p.521.

흔들리는 남편의 모습.  
昏睡 속에서 피어올리는  
아내의 微笑. (밤은 에델로 풀리고)  
긴 迂廻路를  
흔들리는 아내의 모습.  
하얀 螺線通路를  
내가 내려간다.

- 박목월 <迂廻路>(『사상계』 5월호)

위의 시는 언어를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대칭구도로 균형을 갖춘 작품이다. 김수영은 뒷부분의 반복은 동일한 중복이 아니라 “죽음 전후의, 가사(假死) 전후의, 종교 전후의 대척(對蹠)”<sup>17)</sup>이라고 하여 형식에 의한 심화된 의미의 완결을 이룩한 예로 제시하였다. 이 시는 다소 감상적이면서 처연한 느낌을 던지는 가운데에도,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면에서 원숙한 시인의 경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김수영에 의하면 이러한 경지는 모두 박목월의 “근면한 기술적인 시행성(試行性)”<sup>18)</sup>이 이룩한 결과물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내용과 형식 모두 진화했다기보다 형식만 재빠르게 움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목월의 위 두 시가 기법적인 측면에서 모더니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때 김수영이 월평에서 기법과 내용 모두를 충족하는 작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앞서 그가 말한 한국 현대시의 한계라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대응해 나아갈 사항은 무엇일까. 그는 송옥시의 실험 진행을 예로 들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송옥도 실험을 위한 실험을 난행(亂行)하다가 지쳐 떨어진 수많은 소위 모더니스트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그의 실험이 실험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면

17) 위의 글, p.524.

18) 위의 글, p.522.

그는 당연히 그의 스테이트먼트의 장기(長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발전은 순수시로의 퇴보가 아니라, 풍자적인 스테이트먼트의 순화(세련)의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적 풍토가 스테이트먼트의 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장 불리하고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우선 우리들은 세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불필요한 장벽이 너무 많고 언론의 자유도 충분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런대로 우리들은 장벽의 조건과 맞서서 제대로의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없다는 스테이트먼트라도 해야 한다. 혹자는 오늘날의 세계시의 유행이 진술의 시의 단계를 졸업한 지 오래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계시(즉, 서구시)의 사정이지 우리들의 사정은 아니다.<sup>19)</sup>

서구시의 흐름에서도 뒤떨어졌을 뿐더러, 모더니티의 대척점인 관념시로 흐르기 쉬운 스테이트먼트의 시, 즉 진술시를 그가 시단에 제안하는 까닭은 물론 한국 현대시의 성숙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진술시는 당대 현실에서 하나의 차선택이면서 과정상의 단계적인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약은 남아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열악한 당시 조건에서 진술의 행보는 너무 자주 장애에 부딪치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럼에도 진술시가 지니는 강점은 “스테이트먼트가 시에 노출될

19) 김수영, 「‘현대성’에의 도피」, 위의 책, pp.528~529.

20) 창작의 자유는 김수영이 시와 산문을 통해 자주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자아 보아라, 당신도, 당신도, 당신도, 나도 새로운 문학에의 용기가 없다. 이리로서도 정치적 금기에만 다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새로운’ 문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김수영은 정치적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으며(「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401), 또 “문화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정치의 유무와 직통하는 문제이다”(「지식인의 사회참여」, 위의 책, p.217),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언론자유다. (...) 창작의 자유는 백퍼센트의 언론자유가 없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창작 자유의 조건」, 위의 책, p.178)라며 자유의 문제를 거듭 강조하였다. 생의 마지막까지 별인 이어령과의 문학 논쟁도 결국 저조한 창작력의 책임이 문학인에게 있다는 이어령의 주장과, 그 이유가 검열과 같은 사

때 그 작품의 현대성의 성질과 방향과 진위가 가장 뚜렷하게 파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up>21)</sup> 김수영의 이 언급은 앞서 보인 송옥시의 난행(亂行)뿐만 아니라 박목월의 기법적인 탁월함까지도 다 해결하지 못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성’ 획득의 차원과 연관이 있다. 그는 그것을 이제하의 시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하(李祭夏)의 <밤의 추억(抄)>(현대문학)은 그런 의미의 기백(氣魄)의 새로운 호흡을 보여준 믿음직한 감을 주는 작품이었다.

죽은 애기들은 알지  
밤은 마지막 그 살 한복판에서  
희디흰 한줌의 뼈를 계운다

거울 속에서 뼈는 자란다  
죽은 장님들은 다 알고 있지  
세계는 밤이 보던 한 장의 거울  
칠색(七色)의 넥타이를 자꾸만 매는  
나는 옆구리에서 떨어진 허무한 사나이  
(왜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일까?)  
헛청, 헛청, 헛청, 헛청, 찾아서 간다

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끝까지 호흡을 그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스테이트먼트트라기보다는 꿈의 독백에 가깝지만, 요설(饒舌)이 아닌 이 독백의 뒤에는 뜨거운 발언의 의욕이 숨어 있다.<sup>22)</sup>

위와 같이 “뜨거운 발언의 의욕”을 신뢰한다든지, 「요동하는 포즈들」(『사상계』 8월호)에서 장호의 <우리들의 얼굴>을 인용하며 공명을 줄

---

회의 억압에서 비롯했다는 김수영의 주장이 부딪친 것이라 볼 때, 김수영에게 창작의 자유는 중요한 문학적 논제였다.

21) 김수영, 「‘현대성’에의 도피」, 위의 책, p.529.

22) 같은 글.

수 있는 “다정스러운 호흡의 발언”을 든다든지 할 때, 그것은 진술시의 한 도달점이면서 진술시가 획득할 현실감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김수영은 진술시의 제안 외에도 그 진술이 설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발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상(혹은 사상의 여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사상은 시에 신념 있는 일관성을 준다’고 하거나 ‘시의 실험이 동요나 방황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인의 기저(基底)에 신념이 살 있어야 한다’는 말<sup>23)</sup>에서 ‘사상’과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이나 신념 외에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양심’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사상계』 9월호까지의 연재를 마치고 이어지는, 연평(年評)에 가까울 정도로 긴 분량으로 이루어진 평론 「생활현실과 시」(『사상계』 10월호)에서는 비평가가 언어의 서술과 작용, 바꿔 말하면 시의 내용과 형식 어느 한 진영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경향의 작품 속에서도 ‘양심’이 살려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평가의 임무라고 하였다.<sup>24)</sup> 또한 그 ‘양심’은 같은 글 속에서 일정한 방향을 이룬다.

우리의 주위는 모든 정경이 절박하기만 하다.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참말로 눈을 돌릴 곳이 없다. 우리의 양심은 24시간 온통 고문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시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시의 양심을 지킬 만한 여유는 가져야 할 것 같다.<sup>25)</sup>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힘이 맺은 데가 없고, 시의 긴장이 없고, 새로운 언어의 자유를 행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시의 양심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sup>26)</sup>

23) 김수영, 「요동하는 포즈들」, 위의 책, p.535.

24) 김수영, 「생활현실과 시」, 위의 책, p.261 참조.

25) 위의 글 p.265.

26) 위의 글 p.267.

여기서 ‘양심’은 도덕적인 의식을 뜻하는 일반적 의미보다는 김수영 특유의 문학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그것은 시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면서 도외시하기 쉬운 기준으로, 시의 기법이나 심지어 언어에 대한 의식 이전에 선결해야 할 조건이면서 사상이나 신념과도 맞닿아 있는 정신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마지막에 쓰인 평론 ‘난해’의 장막(『사상계』 12월호)에서도 그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이지만 기술의 우열이나 경향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시인의 양심이 문제다. 시의 기술은 양심을 통한 기술인데 작금의 시나 시론에는 양심은 보이지 않고 기술만이 보인다. 아니 그들은 양심이 없는 기술만 구사하는 시를 주지적(主知的)이고 현대적인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기를 세련된 현대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위의 글은 일차적으로 전봉건의 평론에 대한 비판이지만 ‘주지적이고 현대적인 시’에 대한 오해가 ‘양심’ 없는 기술의 치중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에서 시인의 ‘양심’이 결국 모더니티의 중대한 선결 과제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양심’이 갖추어진 뒤에야 시의 언어의 내용이나 형식의 진보가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수영이 연평을 통해 언어의 서술면에서의 자유, 즉 내용의 측면에서 그나마 현실성을 획득한 시로 이설주의 <복권>을 들고 있다.

紫霞門 고갯길에  
아카시아 낙엽이  
dot자리를 깔고

의좋은 부부라도 지나가면  
좀 쉬었다 가란 듯이-

인왕산도  
얼룩진 눈물을 닦고  
새 치마를 갈아입으니  
옛된 얼굴이 참 예쁘고 곱네

일요일은  
꼭 잠긴 창을  
곧장 열라고 보챌다

여기는 뚝섬  
지난 여름의 상황들이  
벗어놓은 흰 옷같이  
포플러 가지에 걸려 있다

조랑말 꿈무늬에 매달려  
인생은  
落日에 기울어지고

‘진달래’와 고구마로  
한끼를 때우고  
복권을 사본다

- 이설주 <복권-경마장에서>(『현대문학』 4월호)

이 시는 인생의 쓸쓸한 단면이 엿보이는 다소 감상적인 작품이지만 소시민의 일상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일요일에 자하문을 지나며 인왕산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신산한 생활을 잠시 동안만 잊은 상태이고 부실한 끼니 대신 복권에 희망을 걸어보는 소시민의 슬픔이 시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수영은 이 시에서 “가냘픈 인생의 애수와 향락이 적당히 안배된 욕심 없는 세계”가 들어 있다고 평하며, 이러한 욕심 없는 작품이 좋고 믿을 수 있는 작품이라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 시단의 아쉬운 점도 이런 점이라 하였다.<sup>27)</sup>

유추해 볼 때 이러한 ‘육심 없음’이 김수영이 선결 과제로 내세운 ‘양심’도 연결되고 그것은 결국 동시대의 현실성과 시적 진정성의 표출로서 그가 개성적으로 의미화한 모더니티와도 상통한다.

같은 평론의 말미에서 김수영은 “힘이 맺혀 있는 데가 없고, 시의 긴장이 없고, 새로운 언어의 자유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따라서 시의 양심을 이행하지 않”은 불가해한 것과는 대조적인 작품이라며 김광섭의 시를 소개하였다.

抒情이 만물을 들추어 노래를 추구한다.  
꽃이다 새다 노숙한 짐승이여 그 눈에 흐르는 눈물  
강자의 비석에 떨어져 때를 지우는데  
웬 옛장수냐 가위질 소리에 모인 아이들  
서울이란 텔 언제 이렇게 나도 왔나 부다

옆을 서로 스치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가는  
고향과 고향 사이의 불행한 섬 길에서  
버리지보다 나은 것을 찾는 한 별의 허전한 옷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지고한 창공 그 전통 밑에 서서  
나는 어데로 심부름 가는 무슨 물체일까

- 김광섭 <심부름 가는...>(현대문학 9월호)

김수영은 특히 1연 끝의 두 행에서 ‘섬광’을 발견하였는데 “서울이 우주의 이향(異鄉)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감정. 낯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시에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며 “맑은 시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만 좋은 시를 발견하기란 참 어렵다. 그 시와 같이 살 수 있는 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28)</sup> 이는 낯은 것을 뒤바꾸는 새로움이 모더니티의 속성이면서 시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역설

27) 위의 글 p.263.

28) 위의 글 p.268.

한 것이다. 또한 진정한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같이 사는 순간’, ‘진정한 시의 독자로서 시인이 되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시인-평론가로서의 자기 위치와 역할을 가늠하였다.

#### 4. 결어

김수영은 1964년 『사상계』를 통해 본격적인 월평 작업을 시작하여 비평가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월평 활동이 그의 시적 역량과 지성적 안목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의 시작(詩作) 발표 또한 자신의 월평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평은 동시대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그의 시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64년 『사상계』 월평의 특징은 모더니티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수영에게 모더니티의 추구는 서구문학(세계문학)과의 동시성을 이루는 일이며, 당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의 시와 평론에서 드러나는 서구를 모델로 한 근대성의 추구, 혹은 피상적인 서구취향 내지 심지어 뿌리 깊은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가 모더니티로서의 동시성의 달성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면모가 그의 시세계에서 과정상의 단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긍정을 보여주는 시와 평론이 출현한다는 점에서, 1964년의 월평과 평론은 그 이후의 변모를 추동케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김수영은 『사상계』의 월평을 통해 전월 발표된 주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모더니티 접근의 성과를 평하고 한국 시단 현실에 시급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모더니티의 전제 과정으로 동요나 방황에 그치는 기법 실험보다는 진술의 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의 여과를 거친 발언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 ‘신념’

이 숨 쉬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수영이 시에서의 ‘양심’의 개념과 연결되는데 예시한 작품 분석과 견주어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곧 동시대의 현실을 담아내는 사심 없는 절박성과 진정성의 표출이며 그가 특수하게 의미화한 모더니티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사상계』, 사상계사, 1964, 4~12.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4, 4~7.  
『문학춘추』, 문학추춘사, 1964, 4~7.  
송옥, 『하여지향』, 일조각, 1961.

### 2. 참고자료

- 강용훈, 「월평의 형성 과정과 월평 방식의 변화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1, 369~402쪽.  
강용식, 『김수영 신화의 이면 - 주체의 자기 형성과 윤리의 미학화』, 응동, 2004.  
김춘식, 「초창기 잡지의 시 월평과 신시론의 전개」,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41~264쪽.  
김현승, 「金洙暎의 詩的 位置」,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34~37쪽.  
박주현,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내면적 자유 연구 - 죽음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3.  
박지영, 「번역과 김수영의 문학」,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창작과비평사, 2005.  
이승규, 「김수영의 영미시 영향과 시 창작 관련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12, 467~501쪽.  
이시은, 「1950년대 '전문 독자'로서의 비평가 집단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4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49~174쪽.

<Abstract>

## The Criticism of Kim Soo-young and the Modernity

- Focused on monthly review in <Sa Sang Gye> -

Lee, Seung-Gyu\*

In 1964, Kim Soo-young strengthened his position as a critic by monthly reviews publishing in <Sa Sang Gye>. The monthly reviews had an affect on not only his capability of poetry but also developing his ability to look at intelligence. Furthermore, as Kim Soo-young issued his poetry with the awareness of his monthly reviews by himself, these reviews have the importance to show a concrete view of poetry looking through the other poet's works. The distinct feature of the monthly review by <Sa Sang Gye> is to carry the modernity as the main subject. The pursuit of Modernity meant the achievements of simultaneity with western literature(World literature) and detailed reality beyond statement poetry to him. By criticizing the works published in past month, Kim Soo-young evaluated performance of modernity and suggested urgent alternative for the world of poetry in Korea. He suggest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ity, developing the statement poetry rather than technique experiment should put the first. To actualize it, Kim Soo-young said that you need statements going through filtering out consciousness and a belief should exist at the base. I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

\* Anyang Univ

conscience from his poems, expressing the urgency and authenticity for a contemporary reality without ulterior motive and it can be defined as the specialized modernity.

Key Words : Kim Soo-young, monthly-review, modernity, reality, conscience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4월 4일